

[종합·해설]

여야, 10·25 재보선 득표전 총력

여야는 10·25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1일과 22일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거리유세전을 전개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막판 득표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10·25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1일 여야 지도부는 해남·진도와 화순, 신안 등 전남지역 3개 선거구를 찾아 총력 지원을 펼쳤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해남읍에서 박양수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왼쪽). 최영수 신안군수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한화갑 대표(오른쪽).

우리-민주 “햇볕정책 계승” 한 표 호소

與 지도부·지역의원 총출동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남·진도 선거구의 거리유세에 나서 공약발표와 함께 지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 아닌 우리당”이라며 “도덕성은 물론 지역개발 능력을 보여라 우리당 후보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세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천정배·유선호 의원과 강기경·김태홍·주승용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대거 가세했다.

한화갑 “한나라 독주하게 지원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과 22일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상열 대변인 등과 함께 해남·진도, 신안과 화순의 선거 현장을 찾아 총력 지원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곧 없어질 열린우리당을 투표하면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정당인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했다.

장 상 공동대표와 이낙연·김종인 의원 등도 3개 선거구를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조순형 의원은 22일 신안 압해도와 지도, 화순읍에서 최영수 후보와 정완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지원유세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부총장은 21일 해남·진도와 신안을 찾아 설철호 후보와 김영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창희 최고위원은 22일 당 소속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지원유세를 갖는다.

남진·현숙 등 유명연예인 참여

○열린우리당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인 박양수 후보의 지원유세에는 남 진과 현 숙이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원봉사자로 참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에는 가수 남 진씨가 해남지역 장터와 상가 등을 돌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으며, 22일에는 현 숙씨가 해남과 진도지역을 방문했다.

박 후보측은 “23일에는 코미디언 한 무씨, 24일에는 ‘내조영’에 출연중인 장순택씨와 기정수씨 등이 지원유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화순서 또 금품제공 적발

화순에서 또 다시 보궐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선관위에 포착됐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모 정당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A씨가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B씨에게 지원을 당부하며 20만원을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25 재보선 정계개편 앞당길까

與 ‘도 참패’ 경우 조기발발 가능성 민주당 호남 석권엔 통합론 주도권

이들 앞으로 다가오는 10.25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당장은 북핵 사태에 파묻혀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선거이지만 막상 선거결과가 나오면 유동성 높은 정국 분위기와 맞물려 의외의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관측들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관세의 흐름상 ‘야당 압승-여당 참패’라는 기존 재보선의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맥빠진 게임’으로 막을 내릴 소지가 크고, 이 경우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당초 정국국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는 정계개편

논의의 ‘시간표’를 앞당길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대선 비관론에다 현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까지 겹쳐질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최대 변수다.

막판 관세는 ‘여당의 총체적 부진, 민주당의 호남권 강세, 한나라당의 비호남권 우위’로 요약되는 초반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여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조기에 불붙을 개연성이 높은 점이다. ‘예고된 결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 결과는 또다시 여권에 심리적 충격을 안기면서 ‘범여권 통합’ 등 새판짜기 논의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논의의 본격적인 공론화는 국감이 끝나는 내달 초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이후 등장할 수 있는 현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은 정계개편 논의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북핵 대응과정에서 내부 논란에 휩싸인 김근태 의장은 선거참패에 따른 책임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방문시 ‘출 파문’을 일으킨 김 의장에 대해 선거 직후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개편 논의의 또다른 축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권을 석권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범여권 통합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도층 154명 외국대학 가짜박사”

전현직 교수·연구원 등 포함

대학교수, 고위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54명이 국내에서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4개 외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활동중이라고 국회 교육위 소속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진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퍼시픽웨스턴대’, ‘퍼시픽에일대’, ‘코헨 신학대’와 러시아의 ‘극동예술아카데미’ 등 외국대학 4곳이 자국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위 인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 이전에 박사 학위를 받은 154명은 전·현직 대학교수 12명을 비롯, 연구원, 고위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간부, 목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코헨 신학대 출신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퍼시픽웨스턴대 34명, 극동예술아카데미 22명, 퍼시픽에일대 9명 등의 순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 금강산 관광객 벌금부와 금증

을 1,177건 1만6,800달러

을 들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북측의 벌금 부과 건수가 크게 늘었다. 22일 통일부가 국회에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북측이 1~7월 금강산 관광객을 상대로 부과한 벌금은 1천177건으로, 금강산관광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벌금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벌금액은 모두 1만6천800달러였다.

연간 건수를 보면 1998~1999년 372건(1만4천100달러), 2000년 240건(3천400달러), 2001년 138건(1천900달러), 2002년 427건(3천500달러), 2003년 302건(4천600달러), 2004년 540건(8천300달러), 2005년 979건(1만8천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까지 벌금 부과 규모는 4천175건에 7만600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북측은 관광객의 관광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오류, 환경오염 행위 등 위반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1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필뉴스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법무사 광고문의 (062)227-9600

김성근 법무사
부채증명 발급 대행
각종등기, 경매 상담
금호지구 헤더마트 옆
T.(062)681-2345

주기성 법무사
연중무휴 24시간 출장 상담
개인회생·파산·면책
부채증명대행 비용분담
위치: 법원 앞
상담전화 016-225-3512
T.(062)222-5122~3

박종욱 법무사
개인 회생·파산 면책
회생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T.(062)385-2070~2080

송종원 법무사
친·절·상·담
부동산 이전, 설정 모든 관련
회사설립·증자·감사·합병
T.(062)234-4200

윤재호 법무사
햇탕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남 지역의 파산/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
부채증명서 무료 발급
수임료 분납 가능
T.(062)384-9768~9

희망법무사 사무소 이상준·남종우 법무사
채무/입류/추심
등산경매/신용불량 해방!!
빛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T.(062)228-4455, 011-625-6097

직장인에게 전하는 리틀차이나 중국어학원 최고의 희소식!!!
270,000원을 돌려준다구?
왜? 어째서?
직장인이면 돌려준다.
아래내용에서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면
최고 27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빨리 등록하러 가자~!
www.littlechina.co.kr
금남로 4가 21번지 하나로 통신 맞은편 TEL.(062)233-9582 (풍)구오빨리

가을 단풍 구경을
안전한 기차여행으로...
금오산·직지사
11월 2일 광주역 출발
속리산 단풍
11월 6일 송정리역 출발
통도사
11월 7일 화순역 출발
호돌이관광여행사
T.[062]526-6630 / FAX:[062]528-4758